

디지털 전환시대, 사회적 영향력과 대안 모색

디지털사회를 생각한다 이재열 외 지음



AI(인공지능), Chat-GPT, 빅테크 플랫폼, 알고리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가짜 뉴스,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영상물)··· 대중들은 매일같이 디지털 관련 용어 쓰나미와 맞닥뜨린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지는 못한다.

2023년 전문가들이 '디지털 대전환이 가져온 사회변화의 양상을 추적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분야는 사회학과 공학, 법학, 정치학, 철학, 경제학, 경영학, 저널리즘 등 다양했다. 이들은 '디지털 사이언티'를 설립하고 6차례에 걸쳐 포럼을 열었다. 시간 '디지털사회를 생각한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력과 대응방안을 함께 탐색하는 여정'을 오롯하게 담아낸 성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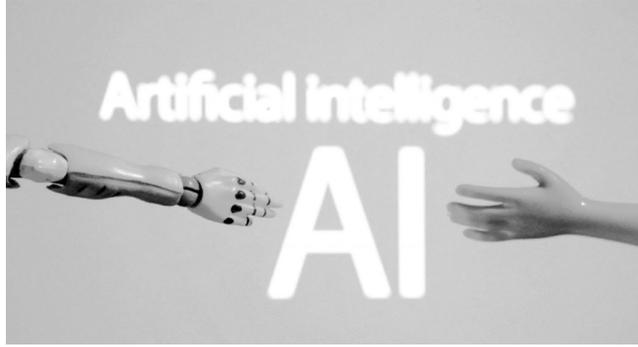
부제 '일상에서 일터까지 디지털혁명의 현장과 디스토피아의 그림자'를 붙인 신간은 크게 ▲디지털 전환과 삶의 양식 ▲디지털 전환이 가져온 일터의 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과 대응책 등 3부로 구성돼 있다.

포럼 참가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발전이 우리 삶과 공동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공정한 인공지능이란?' 등 화두를 던지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더 탐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이라며 "인간의 정체

성과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 보인다"고 밝힌다. 이병호(사)미래학회 부회장은 인공지능과 사회다양성·전체성이 결합된 4가지 미래사회(신문명 공동체사회-근면사회-노동실사화-전체주의사회)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요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디지털 기술의 부작용이 이슈화됐다. 빅데이터와 플랫폼, AI알고리즘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이다.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의 부작용을 살피며 '디지털 권리장전' 제도화 등 대안을 모색한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에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디스토피아적 양상인 '디지털 과잉현상' 5가지를 들며 "지난 40여 년 동안 디지털에 대해 발전주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이를 시장경제 또는 국가발전에만 연결하려 했던 우리의 관성적 태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2부는 '디지털 전환이 가져온 일터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정착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플랫폼 노동(배달대행, 대리운전, 우버) 등은 전통적인 고용-노동개념을 바꾸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기의 한국의 위상에 대해 "도종 플랫폼이 살아남는 유일한 나라이자, 인공지능 경쟁에서 구축된 한국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의 생태계가 존재한다"라고 파악한다. 샘 울트먼 오픈AI 설립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은 삶의 양식과 일터 등 한국사회 여러 부문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한국을 찾은 것도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사업화하고, 실제로 그걸 만들어 낼 생태계를 가진 세 나라' (미국·중국·한국)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심화과정에서 '포플리즘에 기반한 비밀관성'을 보이기도 했다.

3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과 대응책'에서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교육시스템 혁신과 디지털 기본소득, 해결사 정신 등이 눈길을 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등 혁신적 기업가들의 공통분모인 '해결사(Solutionist)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강경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닫는 글"에서 디지털 전환기 '인간'의 역할에 방점을 찍는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적 환경은 서로 충돌하는 메시지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종합하여 해석하고 대응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클러코스터·2만원> /송기동 기자 song@

새로운 책

▲김시습, 불교를 말한다=방외자의 삶을 살았던 김시습은 아홉 살 무렵 대궐로 나아갈 정도로 천재였다. 그는 시문에 능통했으나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두문불출한다. 이후 책을 모두 불살라 버리고 뱀치나와 똥통에 빠지는 '양광'의 삶을 산다. 양광이란 거짓으로 미친 척 행하는 것으로, 지식과 현실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택하는 행위 양식이다. 이를 통해 명저 '금오신화'를 집필한 이야기를 알게 된다. <둘베개·3만5000원>



▲은퇴 부부의 42일 자유여행=남편과 은퇴한 뒤 떠난 자유여행에서 펼쳐진 이야기를 담았다. 부부는 가우디의 일생이 담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부터 산세바스티안, 포르투를 거쳐 도착한 리스본과 파두의 향기 등 세계 곳곳의 아름다움을 마주한다. 그러나다를 만났던 뒤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와 세비야 대성당에서 이슬람 문화를 체험하고, 알람브라 궁전에서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노래를 듣는다. <크레파스북·1만8000원>

도서관, 감각에 따라 전시된 그 모든 공간에서 '제도'를 넘어서는 예술 미학을 발견해 간다. <사계절·1만5000원>

▲앤서=대전쟁 이후 황폐화된 2086년 미래, 인간들은 생체병기인 '아르골'을 피해 방벽 '셸터' 안에 모여 산다. 자원, 식량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인류는 갈등과 격차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 유이는 동아시아 국가 연합의 셀터인 '앤서'에서 18년을 살아왔다. 그는 궁적 포인트를 쌓아 정식 시민이 됐으나, 홀로 남는 밤마다 과거의 아픔이 시달린다. 그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연인 킨과 공습으로 인해 살해당한 아버지 등 우울했던 과거를 딛고 미래로 전진한다. <김영사·1만4800원>

▲점거당한 집=한 남매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 공공 공간을 '점거'한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던 빈 집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기존의 전시 공간은 오히려 거처로 변모시키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기존 고정관념을 부수고 미술관에서 먹고 마시며 자는 시도는 '자신만의 미술관'을 만들어가는 시도다. 영화관이나

어린이·청소년 책



▲과학이 지구를 구할 수 있나? =지구 는 다섯 가지 기후 위기에 직면했다. 온실 가스 과잉, 화석연료 남용, 식량 부족, 생물다양성 축소 등은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를 해결하는 대체 에너지, 탄소포집활용저장 및 태양광 지구공학, 꿈의 효율에 가까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통한 그린 수소 등 신기술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해문집·1만4800원>

도입되면서 여태 경험해 보지 못한 공부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문해력보다 '질문력'이다. 챗GPT에 어떤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매경주니어북스·1만7000원>

▲공부력 상승 챗GPT 200% 활용법=학교에 AI교과서 도입이 논의되면서 주입식 교육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5년부터 초·중·고교 교과서에 AI가

▲달꽃 밥상=깊은 밤, 배고픈 아이는 기억을 잃어버린 할머니와 여행을 떠난다. 우유갑으로 만든 기차를 타고 꽃길을 따라가며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 보름달이 환한 밤에는 사랑살랑 꽃잎 한 소쿠리가 있다. 한기위 보름처럼 풍성한 달빛 한 그릇으로 사랑을 전하는 '달꽃 밥상'이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차려진다. <사계절·1만6800원>

'연령주의' 장벽 허물고 '산뜻한 나이 들'의 서사

오롯이내 인생이잖아요 -밀라노나 이야기



장명숙·이경신 지음

73세 할머니가 주인공인 유튜브 채널에 MZ 세대들이 열광한다. 이탈리아어로 '친구들'을 뜻하는 '아미치(Amici)'라 불리는 90여만명의 구독자들은 그가 전해주는 패션팁, 인테리어에 감탄하고 따뜻한 어른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에 위안을 얻는다.

채널 '밀라노나'의 주인공 장명숙은 밀라노에 패션 유학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의상 디자이너 등을 맡았던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TV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그의 첫 책 '햇빛은 잔잔하고 인생은 귀하니깐요'는 18만부가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되기 위해 여전히 고민

하는 1952년생 장명숙과 자기다움을 지키며 '빛나는 노년'을 꿈꾸는 1972년생 '밀라노나' 제작자 이경신이 함께 쓴 '오롯이 내 인생이잖아요-밀라노나 이야기'가 나왔다. 책 제목에는 "나만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자"는 의미를 담았다.

2019년 여름 만난 두 사람은 일로 첫 인연을 맺었지만 크리에이터와 제작자의 관계를 넘어 스승과 제자, 어머니와 딸, 그리고 친구가 돼 청년과 중년, 노년의 삶 등 인생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책은 두 사람이 교환한 산문, 편지글, 문자 메시지와 직접 만나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했다.

서로 번갈아 질문자와 답변자(노나와 경신)가 돼 대화체로 써 내려간 책은 나이 들기, 다스리기, 말하기, 생각하기, 입고 먹고 말하기, 함께 일하기, 사랑하기 등 7부로 구성돼 있다. "어떻게 나를 지키고, 어떻게 너를 대하고, 어떻게 즐기며 살 것인가"에 대해 나눈 이야기는 모두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던져보는 질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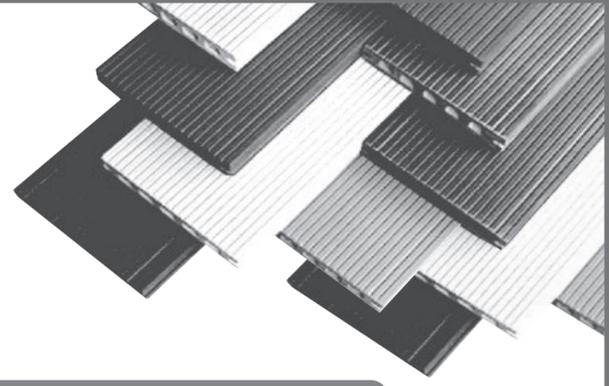
"나이가 들어 비로소 인생과 연애하는 느낌이 든다"는 노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젊은 친구들의 질문을 받으면 더불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다. 아직도 삶에 서툴러 매번 흔들리는 경신은 일상에서 맞닥뜨린 문제들에 대해 노나에게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나간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나이 들, 자기 연민이라는 뜻에 빠지지 않는 것, 불안이라는 알람이 울릴 때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대화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표현, 데이트 폭력, 비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경제적 자유의 의미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한다. 또 지친 마음을 위한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 하며 감자밥전과 김밥의 레시피를 교환하고, 40년 째 같은 치수의 웃을 입는 노나의 비법도 소개한다.

"어떤 삶에도 햇빛이 닿으면 그늘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늘을 끌어안아야 삶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묻는 이들을 만났을 때 노나가 들려준다는 말이다. <김영사·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